

1930年代 휴우머니즘論攷

姜 玲 珠*

1

現代社會와 文化의 諸般 狀況 속에서 휴우머니즘의 중요성을 말하는 사람들은 적지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 오늘날에 휴우머니즘만큼 無力하고 無意味한 단어가 되어버린 例도 드물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휴우머니스트를 自處하고 모든 哲學이 휴우머니즘을 自任하기 때문에¹⁾ 오히려 휴우머니즘은 그 意味를 상실하고 重要性을 간과당한다. 人間의인 것(humanum)이란 人間의 本質(humanitas)을 의미하며 이즘(ismus)이란 그 本質을 本質로서 容納하고 싶어하는 것을 말한다²⁾라고 휴우머니즘을 정의한다면 이는 곧 인간다운 삶에 대한 소망의 표현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소망이 점점 더 절실하고 강렬한 것이 되어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휴우머니즘의 意味喪失 현상은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는 곧 그 사회가 總體性(Totalität)을 탈환하기 위한 최후의 堡壘중의 하나를 상실함에 해당하

* 博士課程(國文學專攻)

- 1) “휴우머니즘”은 다음과 같은 네가지 主義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사용되어 왔다: ① 私有財産制度和 資本主義社會의 산물인, 인간의 인간으로부터의 疎外를 제거하려 한다는 점에서의 共產主義 ② 人間을 모든 것의 척도로 삼는다는 人間中心의 視點이라는 점에서 프래그머티즘 ③ 영원한 眞理를 완성하고 超越的인 리얼리티와의 關係 속에 들어갈 수 있는 人間의 能力을 확신하는 人格主義 또는 唯心論 ④ 人間의 宇宙, 人間의 主觀의 宇宙 이외의 다른 宇宙가 없다고 인정하는 實存主義(P. Edward (ed.), *The Encyclopedia of Philosophy*, 4, The Macmillan Company and the Free Press, 1967, p. 72)
- 2) M. 하이데거, 「휴우머니즘論」, 崔敬喜 譯 (博英社, 1976(1964)) p.68.

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휴우머니즘의 意味의 恢復 내지 再獲得은 현대 文學과 哲學의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가 되어 있다. 이러한 見地에서 本稿는 1930년대 韓國 評壇의 휴우머니즘 論議의 성과와 문제점을 고찰하고, 이에 의해 앞으로의 휴우머니즘 文學論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 理念의 성질상 휴우머니즘은 人間性的 蹂躪과 사회적 總體性的 毀損이 심해져 있는 시대일수록 더 심각한 論議의 과제로서 부각된다. 日帝의 植民地 統治가 날로 가혹해져 가고 있던 1930년대 중반의 한국사회는 그러한 例의 하나라 볼 수 있다. 1931년의 滿洲事變을 계기로 戰雲의 造成 및 日本의 軍部 파시즘의 대두가 그 현실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여기에 파시즘에 대항한 西歐 知識人들의 文化擁護國際作家大會와 불란서 文學人들의 行動主義的 휴우머니즘 운동이 적지않은 자극을 주었으리라 생각된다. 그때문에 이 論議에는 左 右翼을 막론한 상당수의 知識人들이 참여하여, 어찌됐건 1930년대 評壇의 중심테마의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당시의 휴우머니즘 論議는 시기적으로 傾向文學의 退潮와 리얼리즘 論爭과의 사이에 위치하며, 소위 “轉形期”³⁾의 시대적 성격과 불가분의 관계를 지닌다. 즉 民族主義와 社會主義의 進路가 차단된 상태에서 時代精神의 指標를 찾고자 하는 노력의 一端이 휴우머니즘론이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와 거의 同時的으로, 또는 이보다 조금 뒤에 제기된 것으로서 대체로 다른 한가닥의 論議로 취급되어 왔던 知性論, 모랄論 등도 어느 의미에선 廣意의 휴우머니즘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原理的인 문제의 탐색이 일단 끝나는 時點에서 創作方法論으로서의 리얼리즘 論議가 전개된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本稿는 논리상으로 1930년대 小說論에 대한 고

3) 당시의 한국 평단에서 흔히 쓰여지고 있던 용어로서 “轉形期”란 龜井勝一郎의 評論集 「轉形期の文學」(ナウカ社, 1934)에서 처음 사용된 것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革命的,” “變革期”를, 다른 한편으로는 “轉向時代”를 의미한다. 轉向은 이 두개의 의미의 상호교환 속에 행해진 것이라 볼 수 있어 “轉形期”의 개념과 불가분의 관계를 지닌다. (思想の科學會(編), 「共同研究 轉向」, 平凡社, 1974(1959), p.286 참조) 金允植 교수는 “轉形期の 시기 구분은 범박하게 말해서 프로문학 퇴조로부터 계경해서 일제 말기까지”라 본다. (金允植, 「韓國近代文藝批評史研究」, 한얼문고, 1973, p.217)

찰⁴⁾의 前段階에 해당하며, 知性論·모랄論까지를 포함한 廣意의 휴우머니즘론을 究明하는 작업의 일부를 이룬다.

이 시기의 휴우머니즘론에 대해서는 白鐵교수의 文學史⁵⁾를 비롯하여 金允植·申東旭 兩教授의 批評史,⁶⁾ 그리고 創作과 批評을 포괄하여 “日恥下韓國 휴우머니즘 文學의 形成과 展開의 자취를 살펴 보고자”⁷⁾한 金容稷교수의 「韓國 휴우머니즘 文學論」등의 先行業績들이 있다. 이와 같은 實證的인 業績들의 성과에 힘입어 本稿는, 당시의 論者들이 의거했던 西歐 理論의 각도에서 그들의 論究를 再照明하면서 일반적으로 휴우머니즘이 내포한 몇가지의 論點들을 해명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결국 당시의 論題에 대한 새로운 視角에서의 意味附與를 의도함에 불과한 것이나, 상실되어가고 있는 휴우머니즘의 意味의 恢復과 再規定을 위해 一助가 될 수 있으리라 본다.

2

이 시기 휴우머니즘론의 先頭論者인 白鐵의 “人間探求論”은 1933년의 「人間描寫時代」⁸⁾에서 비롯되었다.

그에 의하면 近代小說의 要諦를 이루던 “개인주의적 개성”이 위기에 처함에 따라 現代小說은 性格의 붕괴를 초래하고 있으며, 傾向小說 역시 人間描寫를 등한시하거나 이를 왜곡 표현하는 “인간 부재의 문학”이 되어가고 있

- 4) 拙稿, 「1930年代 小說論攷」(서울大學校大學院, 1976) 참조. 연구의 의도와 방법을 비롯한 여러가지 면에서 본고는 이 논문과 동일한 입장에서 쓰여진 것이다.
- 5) 白鐵, 「朝鮮新文學思潮史——現代篇」(白楊堂, 1949).
- 6) 金允植, 「韓國近代文藝批評史研究」(한일문고, 1973).
申東旭, 「韓國現代批評史」(春秋文庫, 1975).
- 7) 金容稷, 韓國휴우머니즘文學論 (「文學과 知性」1972, 여름) p. 286.
- 8) 「朝鮮日報」1933. 8. 29~9. 1 (「白鐵文學全集」第2卷, 新丘文化社, 1974, pp. 75~82에 再收錄). 白鐵全集은 漏落된 事項이 대단히 많으며 收錄된 내용 중에도 부분적으로 削除 혹은 改稿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완벽한 것이 못 된다. 本稿는 全集에 누락되거나 대폭 改稿된 내용에 한해서 본래의 掲載誌(紙)를 참고하고 기타는 全集에 의거하였다. 以下「白鐵文學全集」은 「全集」으로 略稱하며 舊名뒤의 숫자는 全集의 卷數를 가리킨다.

다.⁹⁾ 본래 한 사회의 본질은 개인의 個性的인 性格과 行動을 통해서만 포착될 수 있는 것이므로 “적극성과 창조성이 충만한 인간을 묘사 탐구”하는 것이 “프로문학의 진실한 능동적 리얼리즘의 大道”이며 이에 의해 “제2의 휴우머니즘 시대”가 가능하리라 본다.¹⁰⁾ 그리고 이러한 “제2의 문예부흥”을 위한 또하나의 要件으로서 “고전 가치에 대한 연구와 탐구”에도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¹¹⁾

그후 傾向文學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1936年 이후의 그는 “현대문학의 중심과제는 새로운 인간형의 탐구형성에 있다”¹²⁾는 A. 지드의 말을 援用하여 자신의 人間探求論을 옹호하는 한편, 이를 문학에 있어서의 個性과 普遍性的의 문제로서 정립시키려 한다. 즉 “文學은 어느 측면으로 보나 개성적일 밖에 없”으며 “개성적인 데서만 普遍性에 도달할 수 있다”¹³⁾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A. 지드가 역설하는 “새 인간형의 創造”와 그의 영향 하에 당시의 불란서와 일본을 風靡하던 行動主義文學의 이땅에서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懷疑的이며, 자신들의 상황으로 보아, “이 정세 속에서 고민적으로 사는 양심형의 인물”을 그리는 것이 “더 실감이 가는 우리 문학의 과제”라 본다.¹⁴⁾

다음 단계로서 그는 中國人의 “倫理的文學”의 영향을 받기 이전의 순수한 韓國文學·韓國人의 전통을 “風流性”이라 규정하고, 輸入思潮인 휴우머니즘론의 土着化를 위해 “한번은 風流人間으로 歸還”할 것을 역설한다. 즉 風流人間은 현실에 대한 무관심과 경멸과 도피로 특징지어지는 “극도의 소극적 인간”임에 틀림없으나, 그것이 한국인의 본래적인 속성이라는 점에서 이 시기 휴우머니즘론의 “現實的인 條件”이 되어 있으므로, 西歐的인 휴우머니즘의 能動性을 받아들이면서 그 風流性을 살려나가는 “批判擷取”의 자세가 요망된다는 것이다.¹⁵⁾

9) 「全集」 2, pp. 75~82.

10) 「全集」 2, pp. 104~105.

11) 「全集」 2, p. 122.

12) 「全集」 2, p. 124.

13) 「全集」 1, p. 500.

14) 「全集」 2, pp. 129~132.

15) 白鐵, 東洋人間과 風流性 (「朝光」 1937. 5) p. 273.

白鐵, 風流人間의 文學 (「朝光」 1937. 6) pp. 279~280.

이와 같은 그의 휴우머니즘론은 同時代人들간에 허다한 批判과 論爭을 불러 일으켜, 휴우머니즘을 당시 評壇의 중심테마로서 부각시킨 데엔 일단 그 공로가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同時代의 많은 批判者들에 의해 언급된 바와 같이 그의 휴우머니즘론이 일으킨 論議의 煩雜性 자체가 그의 論理의 錯綜과 模糊性을 말해주는 것이라 볼 수도 있다. 더우기 그는 “이론의 논리성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현실과 인간 사이의 모순과 불균형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에서 휴우머니즘의 無性格性을 옹호하기조차 한다.¹⁶⁾ 이와 함께 “科學的 態度와 訣別”을 선언한 그의 “鑑賞批評”¹⁷⁾의 태도는 왕왕 哲學的 근거 박약을 초래하여 그것이 이 시기 한국의 휴우머니즘 論議를 迷宮에 빠지게 한 주요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이에 반해 휴우머니즘의 “無性格·無規定性”을 극복하고 확고한 “思想的 根據를 獲得”할 것¹⁸⁾을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哲學的 解明을 시도한 것이 金午星의 “네오 휴우머니즘론”이다. 그에 의하면 近代 市民社會의 주도원리이던 “主觀主義”가 지배력을 상실하고 그에 대립하여 나타난 “客觀主義”가 不毛性을 초래하며, 더우기 世界的인 파시즘의 橫行으로 文化의 危機, 文化人의 不安이 고조됨에 따라 現代人에게는 “不安으로부터” 탈출하여 “再建에” 도달한다는 至難한 과제가 가로놓이게 되었다. 이의 해결은 오직 不安을 “具體的 感性的”인 것으로서 切感하고 이를 超克하려는 “어떤 主體的 決意”에 입각한 “能動的精神”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時代的 轉換期에 있어서는 어떠한 實踐的 테에세보다도 “能動主義의 啓蒙的 役割”이 요구되고 있다. 즉 文學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나 明日에는 가능할 “能動的 人間타입”을 創造함으로써 今日的 不安을 超克하고 明日의 人間을 變革시키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¹⁹⁾ 이와 같이 “現實에만 執着하지 않고 可能的 現實을 創造할 수 있는 創造的 리

16) 「全集」 2, p. 159.

17) 白鐵, 批評史論——科學的 態度와 訣別하는 나의 批評體系 (「朝鮮日報」 1936. 6. 28~7. 3)

18) 金午星, 휴우머니즘 文學의 正常的 發展을 爲하여 (「朝光」 1937. 6) pp. 318~319.

19) 金午星, 能動의 人間의 探求 (「朝鮮日報」 1936. 2. 23~29).

아리즘”이 곧 네오 휴우머니즘인 바,²⁰⁾ 이의 成立을 위해서 文學의 파토스는 “그 時代의 一部의 사람들에게 유토피아의 으로 豫感되는 바 새로운 憧憬의 標的”, 즉 뮤토스를 요하게 된다.

한편 이러한 뮤토스는 이데올로기라는 一定한 論理에 의해서만 “自己를 實現”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비로소 哲學의 理性, 즉 로고스는 文學의 파토스가 수반하는 뮤토스를 理論的으로 조직 완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文學으로서 처음 나타난 그 時代의 文化는 다시 哲學으로서 自己의 體系를 完成”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文學과 哲學, 로고스와 파토스, 認識과 創造의 “連結融合”을 필요로 하게 된다. 그리고 이 結合을 가능케 하는 유일한 媒介는 “過去와 現在와 未來를 行動의 瞬間에서 統一하고 있는” 行動의 觀點이라는 것이다.²¹⁾

3

金午星의 네오 휴우머니즘론은 처음부터 비교적 확실한 형태로 자리잡아 후기까지 별다른 변모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초기의 人間探求論에서 1937년의 風流人間論에 이르는 동안 부단한 변모와 自己修正을 거처온 白鐵의 所論과는 극히 대조적이다. 사실상 그의 최초의 휴우머니즘론인 「能動的 人間의 探求」에는 이미 이 문제를 위한 마지막 寄稿인 「휴머니즘 文學의 正當的 發展을 위하여」에 이르기까지의 그의 論旨의 大體가 집약되어 있고, 그 이후의 노력은 대부분 앞서 피력한 사항 하나하나에 대한 보다 정밀한 論證과 敷衍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이는 그의 論議가 별다른 진전이 없는 제자리 걸음에 머무르고 있음을 말해준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점은 金午星의 批評이 처음부터 명백한 思想的 立場에서 출발한 것임에 반해 白鐵의 휴우머니즘론이 社會主義로부터 이탈하여 自由主義로 전향해가는 과정에서 제기되었다는 사실로 설명될 수 있으리라 본다. 1933년

20) 金午星, 文學에 있어서 倫理와 論理 (『朝鮮日報』 1937. 9. 23)

21) 金午星, 現代文學의 新局面 (『朝鮮日報』 1936. 7. 31~8. 8)

의 「人間描寫時代」에서 白鐵은 자신의 立論이 傾向文學의 기계성·빈곤성을 부분적으로 비판하려는 것에 불과하며 사회주의적 리얼리즘의 소위 “산人間”을 그리라는 命題에서 시사받은 것이라 주장한 바 있다.²²⁾ 그러나 이 시기의 그가 내세운 “적극성과 창조성이 충만한 인간”²³⁾은 1936년 경의 글에서는 “이 정세 속에서 고민적으로 사는 양심형의 인물”²⁴⁾로 물러서 있다. 뿐만 아니라 1937년의 글에서는 다시 風流人間의 소극성을 “極히 無罪하고 無邪氣”한 것으로서 옹호하고 있고, 그런가 하면 “그들에게 새롭은 人間的 決意와 積極的인 휴—먼이티—를 찾게 하는 것”이 오늘날의 휴우머니즘론의 과제라고 주장하기도 한다.²⁵⁾

이와 같이 부단한 思想的 移行에 따른 그의 휴우머니즘론의 多面性은 때로는 시기적 변모 뿐 아니라 한 편의 글 안에서의 앞뒤 모순을 낳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사실상 초기에서부터 후기에 이르기까지 그의 批評 가운데에는 社會主義的인 색채와 극단적인 個人主義의 면모가 미묘한 混合과 混亂相을 이루고 있으며, 이것이 그의 論理의 矛盾과 模糊性을 초래한 主要原因의 하나라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찌됐건 白鐵의 휴우머니즘론이 전반적으로 行動主義의 실현 가능성을 부인하는 입장임은 확실하며, 이것이 金午星의 네오 휴우머니즘론과의 가장 중대한 차이점이다. 白鐵이 그의 論議의 全過程에 걸쳐 가장 많이 인용하고 가장 확실하게 의거했던 文學人은 A. 지드인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가 공감을 표했던 것은 行動主義者로서의 지드가 아니라 個人主義者로서의 지드인 것이다.

周知하다시피 A.지드는 본래 엄격한 基督教의 傳統 속에서 자라나 이에 대립되는 자신의 예민한 感性과의 고투에 주로 관심을 기울여 온 作家이다. 老境에 접어든 1925년의 콩고여행에서 植民地 虐政에 분격하여 비로소 社會的 關心을 갖게 된 것으로서, 1933년 히틀러의 집권을 계기로 反나치즘 운동에 참가했으며, 同年 N.R.F.誌에 연재된 日記를 통해 코뮤니즘으로의 轉向

22) 「全集」 2, p. 77.

23) 「全集」 2, p. 104.

24) 「全集」 2, p. 132.

을 분명히 하기에 이르렀다. 이후의 그는 모스크바의 제1회 소비에트聯邦作家大會에 멧세지를 보내고(1934년), 文化擁護國際作家大會의 사회자로서 활약하며(1935년), M. 고리키의 위독 소식에 접해 소련을 방문, 그의 장례식에서 연설을 하는 등(1936년) 거의 코뮤니스트에 가까운 노선을 걷게 된다.

이러한 그의 轉向에 대해 초기에는 비판적인 자세를 취하던 R. 페르낭데스도 1934년 2월 스타비스키 사건을 계기로 지드의 노선에 공감을 표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페르낭데스·B.크레뮤·A.말로 등의 이른바 行動的 휴우머니즘을 대두하게 하였다. 이는 당시 불란서의 前衛的 知識人들의 정신적인 위치와 움직임을 대변해주는 것으로 이야기된다. 그러나 1936년의 소련방문에서 社會主義社會의 劃一性과 非人間性을 목도한 지드는 『소련에서 돌아오다』 속에서 이에 대한 부분적인 비판을 가하였고, 앞서 그의 左傾에 동조했던 일부 知識人들의 반격에 접하자, 다시 사회주의 사회를 전면적으로 비판 거부하는 『續소련에서 돌아오다』를 발표하여 명백한 右傾을 선언하기에 이른다.²⁵⁾

그러므로 이 시기 A.지드의 精神的 遍歷이 제기했던 문제성은 그의 영향 아래 제기된 行動主義的 휴우머니즘문학의 측면과, 그의 소련비판에 대한 찬 반의 논의라는 두가지로 집약된다고 하겠다. 특히 日本 文壇에서는 한때 行動主義文學論爭이 활발히 전개되었는데, 그것이 韓國에서는 李軒求·洪曉民에 의한 소개²⁷⁾ 단계에서 휴우머니즘론에 압도 합류되어 버린 것이라 볼 수 있다. 한편 A.지드의 蘇聯紀行에 대해서는 日本의 몇몇 左翼系 知識人들의 비판과 함께 兪鎮午 白鐵 등의 所論이 주목된다.

지드의 左傾에 대한 白鐵의 論評은, 본래 지드의 左傾이 人間性擁護·個

25) 白鐵, 風流人間의 文學 (『朝光』 1937. 6) pp. 279~280.

26) 레지스·미쇼오, 「프랑스現代文學의 思想的對立」 春山行夫 譯(東京: 第一書房, 1937) pp. 299~389 참조.

27) 李軒求, 佛文學思潮의 動態 (『朝鮮日報』 1935. 1. 1~4: 「藝術」 1935. 4에 再收錄)

李軒求, 行動精神의 探照 (『朝鮮日報』 1935. 4. 13~19)

李軒求, 文學의 擁護——抹消된 人間性의 發見 (『朝鮮日報』 1935. 8. 30)

洪曉民, 行動主義文學運動의 檢討 (『朝鮮文壇』 1935. 8)

洪曉民, 行動主義文學의 理論과 實際 (『新東亞』 1935. 9)

性擁護의 정신에서 발단한 것이었던 만큼 人間性的의 擁護를 위해 그가 다시 右傾하게 됨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으로 요약된다.²⁸⁾ 사실상 前記한 바 지드의 코뮤니즘은 —그것을 코뮤니즘이라 부를 수 있다면—그 에스 프리의 출발점을 휴우머니즘에의 신앙에 둔다는 점에서 정통파의 公式的인 코뮤니즘과 현저한 차이를 지니는 것이다. R.페르낭데스에 의하면 “인간에 게 있어서 인간은 최고의 가치이다 라는 信條 위에 선 휴우머니스트”인 자신의 입장에서 볼 때 마르크시즘은 “哲學的 恥辱”과 “屈從”을 강요하는 “전연 상반된 이데올로기”이다. 그러나 自由主義에 몸을 걸었던 당시 독일과 이태리의 知識人들의 末路가 입증하듯이 이제 自由主義는 “出納口에서 거절당할 것이 만한 不渡手形”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오늘의 知識人들은 스스로의 “애고이즘”을 위하여, 스스로를 “救濟”하기 위하여 “푸들레타리아트에 投合”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²⁹⁾

이러한 지드와 페르낭데스의 左傾에 대해 公式的인 코뮤니스트들의 일각에서는 처음부터 “쁘띠 부르조아 인텔리겐차의 絶望的인 自由”라고 조소하기도 했으며,³⁰⁾ 지드의 右傾 이후 蘇聯紀行에 대한 논박에서 프라우다紙는, 지드는 “依然히 佛蘭西의 쁘띠 부르조아의 忠實한 아들”로서, 그의 “突然한 變化”는 “그의 變하기 쉬운 感受性”의 탓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³¹⁾ 俞鎮午는 지드의 左傾이 “個性擁護의 手段으로서의 코뮤니즘”이라는 데에 처음부터 “矛盾을 內包한 轉向”이었으며, 이점에 “벌써 後日의 破綻은 胚胎되었든” 것이라고 진단하기도 한다.³²⁾

이와 같은 批判들은 지드의 轉向動機를 그의 極端的인 個人主義라는 측면으로 해명하려 한 점에서 대체로 공통된 견해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 가운데

28) 白鐵, 나의 지드觀——「蘇聯紀行修正」을 中心하여 (「東亞日報」1938. 2. 5 ~6)

29) 라몬·펠르난데스, 지드への公開狀, 小松清 譯 (「改造」1934. 6) pp. 244~249.

30) 白井吉見, 「近代文學論爭」下(東京: 筑摩書房, 1975) p. 5.

31) 俞鎮午, 지드의 蘇聯旅行記 (「朝鮮日報」1937. 2. 14)에서 再引

32) 俞鎮午, 個性擁護의 限界——現代 휴머니즘의 社會的 背景 (「朝鮮日報」1937. 4. 18~20)

데서 주목해야 할 것은, 白鐵은 앞서의 다른 論者들과는 달리 지드의 右傾을 선명히 옹호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지드의 蘇聯紀行은 소련의 장래를 일단 不問에 붙인, “今日의 現實에 限한 良心的인 反撥”로서, 그 현실이 타개되면 그는 다시 communism에 접근하게 되리라는 것이다.³³⁾

그러나 이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은, 白鐵은 근본적으로 지드가 左傾하느냐 右傾하느냐의 문제에는 거의 관심이 없다는 점이다. 白鐵 자신의 휴우머니즘론 속에서 社會主義와 自由主義가 恣意로, 거침없이 구사되고 있음이 말해 주듯이, 그에게 있어서는 오직 지드의 휴우머니즘과 個人主義가 문제일 뿐이다. 즉 “變貌해야 마지않는 지드의 文學에 있어 主心이 되어 發展된 것은 이 個性問題”이며 “人間에 깊은 興味와 關心을 두고 그 性格과 心理를 研究한, 人間文學의 正統에 屬하는 作家”라는 데에 그의 文學의 특징적 가치가 있는 것이다.³⁴⁾

그러므로 白鐵에게는 그것이 個人主義的인 休우머니즘이건 아니건 별반 상관이 없으며, 심지어는 그것이 行動主義的인 休우머니즘이건 아니건 별다른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있다. 때문에 白鐵은 지드가 일찌기 “資本主義 國家에서는 그 實現이 前途遙遠한 問題라고 明白히 附加”한 바 있는 行動主義는 韓國에서는 물론 北韓에서조차도 실현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同調를 “感傷主義의 現象”이라고 못박아 간단히 포기하고,³⁵⁾ “행동주의적”이라는 에피세트를 떼어버린 휴우머니즘의 영역을 고수하려 하는 것이다.

4

白鐵과 金午星의 휴우머니즘론이 行動主義에 대한 贊反의 문제를 놓고 서로 대립하는 상태에 있었음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 두 論者 間에는 보다 근본적인 면에서의 일치점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중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33) 白鐵, 나의 지드 觀——「蘇聯紀行 修正」을 中心하여 (『東亞日報』1938. 2. 6)

34) 上揭書

35) 白鐵, 現代文學의 課題인 人間探求와 苦惱의 精神 (『朝鮮日報』1936. 1. 17)

은 自由主義로 수렴되는 이들의 世界觀上的 同質性이다. 물론 휴우머니즘은 “文化的 自由主義”이며 “리베랄리즘”은 어니 意味에선 「휴머니즘」의 「포리티칼」한 表現³⁶⁾이라는 定義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또한 세계적으로 1930年代를 지배하던 自由主義・社會主義・파시즘의 三大이데올로기가 모두 그 나름대로 휴우머니즘을 표방했던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일각에는 私有財産制度和 資本主義社會의 산물인 現代人間의 疎外를 克服한다는 美名하에 社會主義가 가장 확실한 휴우머니즘에의 길이라는 주장이 있으며, 그러한 입장에서 林仁植은 고리키의 이른 바 “어떤 「휴머니즘」이란 概念(사회주의적 휴우머니즘을 말함——引用者)”을 지지한다. 즉 現代의 唯物論도 “「휴머니즘」만큼 人間性을 尊重”하는 것은 사실이되, “人間解放이 그 社會의 存在樣式의 解決을 前提”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자신들이 주장하는 바 휴우머니즘은 “「루넛상스」 復興과는 오히려 對立하는 思想”이며, 그 점에서 自由主義측에서 말하는 휴우머니즘과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³⁷⁾

그에 의하면 르네상스가 古代 회랍을 규범으로 삼았던 것은 극히 간단한 두가지 이유로 설명된다: 첫째는 프리체가 분석한 바와 같이 르네상스 시대의 이태리와 고대의 회랍사회가 상업자본과 화폐경제라는 동일한 경제적 기초 위에 서있었다는 “社會의 共通性”의 문제이며, 둘째는 마르크스의 이른바 “幻想的 共同性”의 문제이다. 즉 이 시대의 市民階級은 자신들의 목적을 관철하기 위하여 자기 계급의 利害를 社會 전체의 共同利害인 것처럼 내세우는 “幻想的 共同性”에 사로 잡혀 있었으며, 이를 위하여 개인과 社會 전체의 利害가 分열되어 있지 않던 회랍사회를 典範으로 끌어오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個性의 진정한 가치와 獨立性을 증명한 점에서의 르네상스의 위대성은 인정하지만, “「루넛상스」의 「휴머니즘」이 全人間, 人間性 一般을 解放하였다 함은 하나의 自己欺瞞³⁸⁾이며, “人間的 近代의 不幸,

36) 林仁植, 最近十年間 文藝批評의 主潮와 變遷 (「批判」1939. 6) p. 62. “文化的 自由主義”란 A. 지드와 行動의 휴우머니즘의 理念에 대하여 戶坂潤이 부른 명칭으로 알려져 있다. (阿部知二, ヒューマニズムと文學, 「文學論集」, 東京: 河出書房, 1938. p. 96에서 再引)

37) 林仁植, 「文學의 論理」(學藝社, 1940) pp. 142~143.

38) 上掲書, pp. 158~162.

分裂의 슬픔이 이곳에 胚胎³⁹⁾되었던 것도 또한 사실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現代人間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루넝상스」의 人間解放이 갖은 一面性과 自己矛盾의 否定 우에서 出發⁴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그는 우선 르네상스의 휴우머니즘을 “古代社會와 그 人間의 鄉愁의 行動”이라고 규정한 白鐵과, 이를 “單히 藝術家의 激情에서 絶叫”된 것으로 해석한 金午星을, 眞正한 루넝상스를 捏造한 “歷史僞造”者라고 비판한다.⁴¹⁾ 그러나 林仁植이 이보다 더 크게 문제삼는 것은 그들이 이렇게 르네상스를 왜곡·과소평가 함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는 르네상스의 휴우머니즘을 계승하는 입장에 서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林仁植은, 그들의 휴우머니즘론은 “現代文化危機를 招致한 最初의 原因을 가지고 그 結果를 克服하려는 無意味한 思辯”⁴²⁾에 불과하다고 단정하는 것이다.

林仁植의 비판을 검토함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것은, 그의 單純 明快한 論駁과는 달리 白鐵과 金午星이 모두 르네상스의 휴우머니즘을 일단 비판하는 입장에서 출발한다는 점이다. 白鐵은 당시 일본문단의 르네상스론을 “일종의 感傷論에 지나지 않는다”고 酷評하며, 르네상스 시대의 문학작품에 등장하는 인간들의 “개인주의적 자아정신”을 “간과할 수 없는 엄연한 赤線”이라 보고 그 정신의 “비판적취”를 주장한 바 있다.⁴³⁾ 金午星은 르네상스의 휴우머니즘이 내세운 個人이 “競爭하는 個人”이었다는 점에 처음부터 “自己 否定의 矛盾”을 내포하고 있었음을 지적한다. 즉 이 競爭의 속성으로 말미암아 “自由競爭은 獨點에로, 데모크라시는 獨裁政治에로 轉化”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며, 따라서 네오 휴우머니즘이 추구해야 할 人間性은 르네상스가 제시했던 바 “個人”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⁴⁴⁾

그러나 이러한 전제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論旨는 林仁植의 앞서와 같은

39) 上揭書, p. 228.

40) 上揭書, p. 145.

41) 上揭書, p. 148.

42) 上揭書, p. 149.

43) 「全集」2, pp. 108~118.

44) 金午星, 휴머니즘文學의 正常的 發展을 爲하여 (「朝光」1937. 6) p. 322.

비판을 가능케 할 충분한 여지를 남기고 있다. 白鐵에 의하면 고대 희랍과 14세기의 유럽은 “문예와 학문이 가장 행복된 시대 환경에 놓여 있는” “행운의 시대”였던 바, 그 행운은 “인본사상의 주류 속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는 그 시대가 “역사적으로 한 黎明期”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객관적인 情勢로 보아 오늘날은 歷史的인 黎明期가 아닌 것이 白明하므로, 이와 같은 불리한 時代條件을 개량하려는 인공적인 노력을 요하게 되며, 바로 그 노력의 일환으로서 人間探求에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⁴⁵⁾

그러므로 白鐵이 일본 문단의 르네상스론을 비판하는 것은 객관적인 情勢로 보아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때문이지 現代에 있어서의 르네상스 정신의 意義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가 주장하는 人間은, 그것이 마르크스가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人間이며, 사회주의적 리얼리즘의 이른바 “산 인간”에서 시사받은 개념이며, “경향적으로 묘사된 인간”이라는 그의 온갖 주석⁴⁶⁾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속에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個性을 옹호하고, 어떠한 但書나 中間項도 필요없이 강한 個性이기만 하면 普遍性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는 점에서 르네상스적 휴우머니즘의 연속이며 그 옹호인 것이다.

金午星은 르네상스의 휴우머니즘과 자신의 주장하는 바 네오 휴우머니즘과의 차이를 두가지 면에서 지적한다. 첫째 前者가 수행했던 것이 “人間의 自然性的의 解放”이었음에 반해 後者가 의도하는 것은 “人間의 歷史性的의 解放”이다. 둘째 前者가 내세웠던 個人이 “自然的 個性 모나토적 個性”이었음에 반해 後者가 추구하는 個性은 “歷史的 社會的인 個性”이다. 이와 같은 그의 立場은, 르네상스의 휴우머니즘의 敵對 勢力인 中世의 “神과 權威”가 네오 휴우머니즘의 敵對 勢力인 “資本 文化”등과는 달리 “一種의 自然的 勢力”이며 르네상스가 성취한 人間性이 “原始的으로 獨立한 個性”이라고 보는⁴⁷⁾ 한도 내에서만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45) 「全集」 2, pp. 108~110.

46) 「全集」 2, pp. 76~79.

47) 金午星, 휴머니즘文學의 正常的 發展을 爲하여 (「朝光」 1937. 6) pp. 322~323.

그러나 과연 教會와 封建貴族의 신분적 권위가 역사적 현실과 絶緣된 “自然的 勢力”이며 近代의 個人이 역사적 사회적 조건과 무관하게 “原始的으로 獨立한 個性”인가를 따져본다면, 그의 論理에 근본적인 문제성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역사발전의 사회적 근거를 무시한 그의 觀念的 史觀이 낳은 恣意的 견해이며, 이 편견을 제거할 때 르네상스의 휴우머니즘과 네오 휴우머니즘의 차이에 대한 그의 立論은 사실상 별다른 의미를 지니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5

1930년대 한국의 휴우머니즘론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들이 세계적인 과시즘의 위협 앞에서 人間性을 옹호한다는 선명한 旗幟 아래에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日帝의 軍國主義에 굴복·합류하고 말았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結末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이 시기 휴우머니즘론을 고찰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작업이 되리라 본다.

風流人間論을 종래의 휴우머니즘론과 연결 구체화시키는 데에 곤란을 느낀 白鐵은 다시 현대에 있어서의 知識階級の 意義와 존재방식이라는 문제로 관심을 돌렸는데, 이 “知識階級論”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그의 “事實受理論”이다. 여기에서 그는 “秩序의 世紀”인 19세기에 反하여 20세기의 시대적 특질로서 거론되는 P.발베리의 이른바 “事實의 世紀”와 A.로젠베르크가 주장하는 바 “神話의 時代”라는 개념을 검토한다. 그에 의하면 “지금은 事實의 世紀인 同時에 그것이 끝나는 世紀”이며, “事實의 뒤에는 逆現象으로 神話가 온”다.⁴⁸⁾ 그러므로 “今日 東洋現象은 偶然으로 엮어진 커다란 事實”이라는 점에서 일차적으로 이를 受理해야 하며⁴⁹⁾ “事實의 世紀의 終了와 일정한 세계적인 이상적 정신의 到來를 전제한 준비적인 현상”으로서 이 시대의 “통제적 통일적인 경향”을 일단 용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48) 白鐵, 神話뒤에 오는 理想主義文學 (『東亞日報』1939. 1. 18)

49) 白鐵, 時代的 偶然的 受理 「昭和14年度 朝鮮作品年鑑」(人文社, 1939) p. 302.

그는 “사실을 통하여 새로운 정신적 의미가 탄생”함을 입증하는 작품상의 예로서 「廣塵」 「보리와 兵隊」 「흙과 兵隊」 등 日本의 戰場小說들의 “인도주의적인 경향”을 내세운다.⁵⁰⁾

한편 金午星은 “新世代論”에 대한 철학적 해명을 통해 당시의 30代 知識人들의 역사적 責務를 르네상스 정신의 연속인 “市民的인 것의 克服”⁵¹⁾이라 규정하고, 그 다음 세대의 역할로서 이에 대신할 새로운 原理의 형성, 즉 “原理의 轉換”을 문제시한다. 그에 의하면 近代의 自由主義를 가능케 한 地盤, 즉 近代의 原理는 “自然科學的인 認識”인 바, 이는 事實의 世紀라고 불리우는 오늘날의 混亂을 더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現實을 위해서는 “自然法則的인 原理로부터 歷史的인 原理에로의 轉換”을 필요로 하며, 이는 곧 “主體的인 精神”을 확립하는 것이다. 그리고 “新秩序 新體制”에 이러한 主體的인 精神에 依해서만 自己의 目的을 完遂할 수 있다”고 본다.⁵²⁾

여기에서 그가 말하는 “主體的인 精神”의 의미는 분명치 않으나, 그 다음의 論究에서 그는 新體制의 실현을 위한 새로운 인간형의 형성을 주장함으로써 그 의도를 명백히 한다. 즉 “新體制의 文學은 온갖 個人을 그리되……그 個人은 어찌까지나 自己를 全體에 바침으로써만 그 人間의 性格과 運命을 獲得할 수 있는 그러한 精神으로 그려야”⁵³⁾ 한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명료해지는 바 白鐵과 金午星의 所論은, 자신들이 종래의 휴우머니즘론에서 안티파시즘의 名目下에 즐겨 사용하던 術語와 概念을 거의 그대로 구사하면서 교묘하게 그와 정반대되는 결론에 도달해 있음을 보게 된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들의 휴우머니즘론이 가장 활발히 전개되고 있던 1937년에 이미 林仁植과 金孝植은 각각 金午星과 白鐵의 理論이 파시즘과 결합할 素地를 지니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는 점이다.

林仁植은 金午星의 휴우머니즘론이 “「누구」의 主體, 「어떠한」 行動”인지가 불분명한 막연한 主體性과 行動性만을 강조한 나머지, 이에 의해 “創造된다

50) 「全集」 2, pp. 155~156.

51) 金午星, 新世代的 精神의 指標 (「人文評論」 1940. 2) p. 56

52) 金午星, 原理의 轉換 (「人文評論」 1941. 2) pp. 6~17.

53) 金午星, 文學精神의 轉換 (「每日新報」 1940. 11. 21)

는 歷史의 正體”가 적언치 않다는 점을 주시한다. 물론 그로서도 金午星이 “獨逸로부터 突擊隊員의 行動主義를 輸入하였다”고 믿고 싶지는 안”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無規定, 非前提의인 創造的 行動說”은 나치즘과 파시즘의 이론가들도 주장하는 바이며, “피…히테” 「니…체」의 것과 더불어 「히틀러」 哲學의 部分品”과 유사한 내용이라는 것이다.⁵⁴⁾

한편 金孝植은 白鐵의 風流人間論이 科學性을 缺한 “歷史의 歪曲과 血統理論”에만 의거한 것임을 문제시한다. 즉 이와같이 맹목적인 古典에의 歸還은 傳統主義와 復古主義·國粹主義의 一面이며, 이 경우 傳統主義는 곧 “統制主義의 別稱”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白鐵의 휴우머니즘론은 “傳統主義를 거쳐 國粹主義에로 通하는 綿綿한 氏의 行程 中의 一夜宿泊에 不過”한 것이라 비난한다.⁵⁵⁾

이와같은 비판들은 물론 社會主義측으로부터 제기된 것으로서, 白鐵과 金午星의 휴우머니즘론이 자신들의 世界觀과 대립된 입장이라는 점에 주안점을 둔, 一面的이고 과장된 공격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또한 한국의 휴우머니즘論者들이 불란서의 行動主義的 휴우머니즘을 순수하게 自由主義的인 것으로만 받아들였다는 데에도 문제가 없지 않다. 이들이 行動主義的 휴우머니즘의 理念이 左傾한 것인지 右傾한 것인지에 대해 별반 관심이 없었던 사실은 곧 이들이 政治的인 문제와는 무관한 차원에서 文化의 擁護, 人間性의 擁護가 가능하다고 믿었던 것임을 말해주며, 더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운동이 대두되지 않을 수 없을만큼 절박했던 西歐의 社會적 상황을 그다지 절실하게 실감하지 못한 결과라 생각되기 때문이다.⁵⁶⁾

54) 林仁植, 朝鮮文化와 新휴우머니즘論 (『批判』 1937. 4) pp. 82~83.

55) 金孝植, 告發의 精神과 作家 (『朝鮮日報』 1937. 6. 2)

56) 이점에서 그들은 불란서의 행동주의적 휴우머니즘을 순수하게 自由主義的인 것으로 오해하고 파시즘에 무감각한 채 傾向文學에 대한 遺憾만을 표명하고 있던 日本의 行動主義者 舟橋聖一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입장의 舟橋聖一과 公式的인 社會主義者의 見地에서 이를 매도하는 大森義太郎을 양극으로 활발한 行動主義文學論爭이 일어 났었다. (白井吉見, 前掲書, pp. 3~32 참조)이 兩者에 대한 비판자로서 戶坂潤은 舟橋聖一의 行動主義를 한마디로 “마르크스주의라는 것에 대한 인식부족에 의한 착각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라 평한 바 있다. (戶坂潤, 『思想としての文學』, 東京: 三笠書房, 1936, p. 176).

문제는 단순히 이들이 불란서의 行動主義的 휴우머니즘의 성격을 오해했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오해의 사실이 이들의 現實認識의 鈍感性을 말해 준다는 데에 있다. 이 鈍感性은 곧 일본의 軍部 파시즘의 대두에 대한 이들의 無感覺과 無防備를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는 이 시기 휴우머니즘론의 최대의 통폐라 지적되어온, 논자의 자체의 抽象性의 문제와도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白鐵의 人間探求論의 경우, “人間的인 것”이라는 개념의 抽象性은 대체로 그의 觀念的 非現實的인 르네상스론에서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그는 文藝復興을 歷史上的 黎明期라는 시대적 여건에 의해 우연히 도래한 하나의 幸運으로 간주함으로써 르네상스의 人本主義와 그에 의한 近代人間의 역사적 사회적 성격규정을 기피하고 있다. 이때문에 그의 人間性의 개념은 막연함을 면치 못하며, 나아가서는 그의 人間探求論 전체가 抽象論 속에서 헤어나기 어렵게 되고 만 것이다. 또한 이러한 그의 觀念的인 史觀은 當代의 현실을 “偶然으로 엮어진 커다란 事實”로 규정함으로써 필연적으로 이를 受理解해야 한다는 그의 事實受理論의 盲目性을 초래한 것으로 생각되기도 한다.

金午星의 네오 휴우머니즘론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가 내세운 主體性, 能動性의 개념에는 “「누구」의 主體, 「어떠한」 行動”이라는 역사적 사회적 意味規定이 결여되어 있으며, 이는 근본적으로 그가 설정한 “不安”의 개념이 막연한 데서 기인한 것이라 생각된다. 그에 의하면 人間이 외부적 현실로 인해 生存의 위협을 받을 때 그 위협으로부터 자신의 生存을 옹호하려는 의식이 곧 不安이며, 그 不安을 확고한 主體的 決意 아래에서 극복하려 할 때 이는 能動의 精神으로 高揚될 수 있다. 그러므로 “不安의 精神은 不安 超克의 精神”이라 보아 이를 긍정해야 한다는 것인데⁵⁷⁾ 여기에는 M.하이데거, K.야스퍼스 등의 實存主義哲學과 함께 20세기 西歐의 文學思潮에 대한 B.크레뮤, A.베르쥬 등의 所論의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57) 金午星, 不安의 精神과 能動의 精神 (『四海公論』 1936. 7) pp. 81~83.

B. 크레뮤에 의하면 제1차 세계대전은 西歐人들에게 “이 세계의 不安定”을 경험케 했으며, 따라서 1818년 이후의 西歐에는 다다이즘, 超現實主義, 現實逃避主義, 新心理主義 등 “人格의 分解”의 文學으로 특징지어지는 “不安의 精神”이 지배하게 되었다.⁵⁸⁾ 그러나 1930년 이후의 문학은 “倫理的 文學의 安定化”를 보여주는 몇 가지 뚜렷한 징후와 함께 “人格의 統一”을 회복하려는 “再建의 精神”의 到來를 보여주고 있다.⁵⁹⁾ 이는 “인류가 참담한 大葛藤을 일으킨 다음에는 반드시 빛나는 人本主義의 期間이 와서, 그곳에 精神이 가장 훌륭한 열매를 맺는다”는 역사발달의 법칙에도 맞는 것이라 생각된다.⁶⁰⁾ 이점에서 그는 “不安의 정신이 再建의 정신의 필수적인 序開이며 整地作業”⁶¹⁾이라 규정하는 것이다.

A. 베르주는 18, 9세기 낭만주의 시대의 불안이 不安을 향락의 대상으로 삼으려 한 반면 현대의 불안은 “불안과 싸우고 불안으로부터 탈출하려는 노력”이라 보아 이 양자를 엄밀히 구별할 것을 주장한다. 그러므로 그는 이 경우 “不安은 逃避일 수는 없으며 또한 決定的 態度일 수도 없다……따라서 平衡이나 存在理由나 보다 더 강력한 倫理學的 體系를 찾아내려는 試圖는 증대하여 일정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라 본다.⁶²⁾

이와 같은 견해들은 대체로 1930년대 초반의 西歐 社會의 시점에서 본 일종의 樂觀論이라 볼 수 있다. 실제로 1930년대 初의 西歐에서는 파시즘의 대두와 文化危機의 高潮, 그리고 그로 인한 정신적 위기감의 영향으로 지식인들의 社會意識과 社會的 統合에 대한 希求가 어느 정도 강화되고 있었음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再建의 시대의 시작이었던가 아니면 하나의 相對的 安定期에 불과한 것이었던가의 여부는 그후의 世界史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異論의 여지가 없지 않은 것이다. 이점에서 三木清은 크레뮤의

58) パンジャマン クレミウ, 「不安と再建——新しい文學概論」 増田篤雄 譯(東京:小山書店, 1935) pp. 11~46.

59) 上掲書, pp. 127~167.

60) 上掲書, p. 10.

61) 上掲書, p. 135.

62) アンドレ パルジュ, 「近代文學の精神」, pp. 137~147. 筆者가 求得한 李軒求 先生 所藏本은 落張으로 인하여 舊誌事項을 확인할 수 없었다.

견해가 “하나의 錯誤가 아닐까 어떨까 두려워”하며, 그러한 자신의 懷疑를 뒷받침해주는 例로서 독일의 實存主義哲學의 一端이 파시즘哲學으로 轉化되고 만 점을 주시한다.⁶³⁾

더우기 당시의 일본은—三木清이 개관한 바와 같이—오히려 社會主義의 退潮로 인해, 또는 그 退潮와 더불어 不安이 高潮된 상태였으므로⁶⁴⁾ 西歐人들의 그것과는 현저히 그 양상이 달랐던 것으로 생각된다. 하물며 그러한 일본의 植民地인 한국의 知識人의 한사람으로서 金午星은, 이땅의 현실에서 문제삼아야 할 不安의 특수성을 度外視하고, 서구인들에 의한 既成의 관념만을 안이하게 받아들였던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때문에 그가 제시한 主體性과 能動性의 개념은 抽象論에 빠질 수 밖에 없었으며, 이 점이 그의 論理로 하여금 초기의 指向과는 정반대되는 新體制論과 쉽사리 결합할 素地를 만든 것이라 생각되는 것이다.

6

문학상의 휴우머니즘의 문제로써 마지막으로 고찰되어야 할 것은 휴우머니즘과 創作方法論과의 관계이다. 휴우머니즘이 하나의 創作方法論이 될 수는 없는 개념이라는 점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 시기 휴우머니즘론에 대한 同時代人들의 批判은, 휴우머니즘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려는 입장과 創作方法論의 각도에서 이를 부분적으로 비판, 수용하려는 입장의 두가지로 大別될 수 있다.

前者의 대표적인 例는 韓雪野의 견해로서, 그는 휴우머니즘의 본질적인 성격을 個性擁護와 “唯心的 觀念的” 史觀이라 규정하고, 이러한 성격으로 말미암아 휴우머니즘은 여하한 경우에도 發展性이 없다고 단언한다. 즉 휴우머니즘이 리얼리즘과 결합할 경우 고작해야 “現實의 表面에 顯現하는「現象」의 反映”에 불과하게 되며, 社會主義와 결합한다 해도 “似而非唯物論”에 떨

63) 三木清, 「不安の思想と其の超克」(「改造」1933. 6) p. 50.

64) 上掲書, p. 29.

어저 종래의 휴우머니즘보다 “더 危險한”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것이다.⁶⁵⁾

이에 反해 이 시기의 휴우머니즘론에 대한 가장 정력적인 批理論者인 林仁植은 휴우머니즘을 가장 확실하게 구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리얼리즘이라는 점에서 휴우머니즘론은 리얼리즘론으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時代의 眞實한 描寫가 人間退化의 防止와 새 人間의 登場, 「휴우머니즘」의 創造를 結果 하”는 것임을 생각할 때 진정한 휴우머니즘의 구현을 위해서는 “「人間」을 看板으로 한 어떤 主義가 아니라 時代現實의 核心을 파별하는 執拗한 寫實을 主義로 하는 文學精神에 스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⁶⁶⁾

한편 俞鎮午는 휴우머니즘과 리얼리즘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리얼리스트는 똑같은 苦惱를 그리되, 또 何必 그 苦惱이 이리이리해 解決될 것이라는 教訓을 添附치 아니하되 그 苦惱을 解決하는 열쇠를 준다. 그러나 휴머니스트는 苦惱을 주는 者를 미워할줄 알되 그것을 歷史的으로 把握 못함으로 因해 그것을 解決할 열쇠를 주지 못하는 것이다.⁶⁷⁾

그러므로 그는 진정한 휴우머니즘은 리얼리즘을 지향해야 되며, 그런 의미에서 “亦是 發展性的 餘地가 있는 것은 이뿐(리얼리즘을 말함—인용자)이라고 진단한다.⁶⁸⁾ 이밖에도 尹圭涉, 金龍濟, 安含光 등 많은 批評家들이 휴우머니즘은 리얼리즘과 결합함으로써만 그 意義와 發展 可能性이 있다고 전망하는데, 이들은 한결같이 白鐵과 金午星의 휴우머니즘론이 리얼리즘과 대립되는 입장으로 흐르고 있음을 지적·비판하고 있는 것이다.⁶⁹⁾

65) 韓雪野, 文壇主流論에 對하야——휴머니즘에 對한 一考察 (「朝鮮日報」1937. 3. 30)

66) 林仁植, 「文學의 論理」, p. 233~235.

67) 俞鎮午, 個性擁護의 限界——現代휴머니즘의 社會的 背景 (「朝鮮日報」1937. 4. 23)

68) 俞鎮午, 文壇打診即問即答記——現文壇의 通弊는 레알리즘의 誤認 (「東亞日報」1937. 6. 3)

69) 尹圭涉, 文壇抗辯——그 思想的 昏迷에 對하야 (「朝鮮日報」1937. 4. 3~9)
金龍濟, 朝鮮文學의 新世代——리얼리즘으로 본 휴머니즘 (「東亞日報」1937. 6. 11~16)

安含光, 現代文學精神의 摸索——그 意慾의 레알리즘의 燃燒論 (「朝鮮日報」1937. 11. 11~14)

그렇다면 白鐵과 金午星이 제시하는 創作方法論은 각각 무엇인가가 문제 되지 않을 수 없다. 白鐵은 李箱의 「날개」를 “리얼리즘의 深化”라 한 崔載瑞의 評價에 異議를 제기하고 「날개」의 리얼리즘은 “「안티 휴먼」의 傾向”으로 특징지워진다는 점에서 이를 “리얼리즘의 墮落”이라 규정한다. 반면에 그는 “人類解放의 一種의 휴먼이즘을 根底에 同伴한 리얼리즘”으로서 李箕永의 「故郷」을 高評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作品이 “휴먼이즘의 不足”으로 말미암아 “全面으로 人間性格을 「리얼라이즈」못한” 폐단이 있음을 지적하기도 한다.

이상의 論述을 종합해 볼 때 白鐵은 휴우머니즘의 本質에 해당하는 징후를 “個性的인 것”이라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立論에서 그는 普遍性에 치우친 傾向文學 이래의 리얼리즘을 “營養不足의 狀態”에서 구하기 위하여, 여기에 휴우머니즘의 요소를 투입할 것을 주장한다. 그러므로 결국 白鐵이 상정하는 創作方法論은 “휴먼이즘을 伴侶로 하는” 리얼리즘이라 볼 수 있다.⁷⁰⁾

그러나 以上과 같이 표면적으로는 명백히 리얼리즘을 선택한 것으로 되어 있는 그의 휴우머니즘론은, 부분적으로 그의 論旨 전체를 再考하게 할만한 내용을 開陳하기도 한다.

그러나 작가들이 만드는 것이 진실이요 율바른 것인가 하면 나는 찬성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목전의 인간현실이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그 현상을 그대로 그리고 만다면 문학작품은 따로이 존재할 의미 조차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만일 문학이 현실에 대한 불만에서 만들어 진다면 그것은 현상을 극복하고 더 진실하고 더 완전한 인간상을 그려내는 것이 그 대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⁷¹⁾

물론 이와 같은 그의 論述은 일시적인 논리의 혼란에 불과한 것일지도 모르며, 더우기 이것이 人間探求論 초기의 글이라는 점에서 그의 휴우머니즘론이 안정된 형태로 자리잡기 이전의 견해라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그후의 그의 글에서도, 林仁植이 언급한 바와 같이 “一個 浪漫主義文學論에 不遇”

70) 白鐵, 리얼리즘의 再考——그 「엔티·휴먼」의 傾向에 對하여 (「四海公論」 1937. 1) pp.36~49.

71) 「全集」 2, p.97.

72) 하다고 할만한 요소는 드물지 않게 눈에 띈다. 뿐만 아니라 그의 휴우머 에즘론이 끝난 단계에서 쓰여진 「綜合文學의 建設과 長篇小說의 現在와 將來」에서 그는 長篇小說改造論의 일환으로서 자신이 제시하는 “綜合文學小說”이 “亦是 基本的으로는 하나의 리아리즘文學일는지 모르나 단순한 리아리즘文學이 아니고 文學性에 있어 未來의 理想에 通하는 것이 本格的 方向”이라고 밝히기도 한다.⁷³⁾ 이 점에서 본다면 그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創作方法論은 리얼리즘과 아이디얼리즘의 綜合이라 규정할 수도 있는 것이다.

金午星은 19세기 리얼리즘의 現實的 地盤이 되어 있던 社會發展의 法則性이 파괴됨에 따라 “리얼리즘의 敗北”가 확실해졌음을 지적하고 리얼리즘으로부터의 “脫出”을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古典主義나 浪漫主義에로 後退함이 아니며 리얼리즘文學의 장점인 “誠實性”이나 “리얼리스틱한 手法”을 살려나가는 한도 내에서의 改新이라 본다. 그렇다면 이와같은 새로운 文學 즉 “리얼리즘에 代身할 文學의 主潮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를까”가 문제이다.⁷⁴⁾ 이에 대한 답을 그는 別稿로 미루었으나 이후의 論究에서 이 문제를 다룬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가 리얼리즘에 대신할 創作方法論이 아니라 이에 대신할 文學의 主潮를 묻고 있음을 보면 이에 대한 답이 “휴우머니즘”이리라는 점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이와같이 리얼리즘과 미묘한 관계를 지닌 것으로서의 그의 휴우머니즘의 개념은 R.페르낭데스의 行動主義文學論에서 示唆 받은 것이라 생각된다. 페르낭데스는 “個的 人間을 그의 全體에 있어서 동시에 그의 獨自의 現實性에 있어서 統覺할 수 있는 유일한 觀點”이라는 점에서 “行動의 觀點”을 내세운다.⁷⁵⁾ 이 立論은 古典의 휴우머니즘에 據點을 둔 것으로서, 心理主義文學, 生の 哲學으로 대표되는 “內在論的 立場”과 리얼리즘문학을 종합하려는 시도라 볼 수 있다.

72) 林仁植, 「文學의 論理」, p. 207.

73) 白鐵, 綜合文學의 建設과 長篇小說의 現在와 將來 (「朝光」1938. 8) p. 181.

74) 金午星, 現代文學의 精神——描寫에서 探求에로 (「東亞日報」1938. 2. 19)

75) 라몬 페르낭데스, 認識と創造, 神部孝 譯 (「佛蘭西文藝」1933. 8)

여기에서 규명되어야 할 것은, 그가 말하는 行動의 觀點의 선택과 文學論上的 創作方法論과의 관계이다. 三木清의 해설에 의하면, 行動主義 본래의 정신에서 볼 때 우리들 자신은 모두 일종의 作家이다. 인간은 小說家로서 자신이 空想的으로 이미 만들어놓은 人物을 모방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의 不安이란 우리들이 모방하고자 하는 人間의 타입이 존재하지 않는 데서 유래한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현대의 不安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간 타입을 창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⁷⁶⁾ 이 때의 타입은 “단순히 리얼한 것”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자기의 情熱로부터 創造”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는 “반드시 아이디얼리스틱하기를 요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단순한 리얼리즘이 아니라 클래시시즘에 가까워질 것”이다.⁷⁷⁾ 그리고 이 클래시시즘의 징후에는 “휴우머니즘이 보이고 있다”고 부연한다.⁷⁸⁾

能動的 人間 타입의 創造에 관한 金午星의 論旨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⁷⁹⁾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이들이 말하는 클래시시즘이나 휴우머니즘이 아이디얼리즘이나 리얼리즘과 같은 創作方法論上的 개념이 아닌 것은 자명하다. 三木清은 이점을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創作方法論으로까지通用시키려 하지는 않았던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金午星은 때로 “리아리즘

76) 三木清, 行動的人間について(「改造」1935. 3) p. 68.

77) 三木清, 不安の思想と其の超克(「改造」1933. 6) p. 40.

78) 三木清, ネオヒューマニズム問題と文學(「文藝」1933. 11) p. 9.

79) 金午星의 휴우머니즘론의 골자를 추려보면 三木清의 所論과 거의 유사하여 그에 대한 追隨상태에 가까움이 드러난다. 반면에 그의 휴우머니즘론은 당시 한국과 한국문학의 실정에 지나치게 무관심했던 점을 지적할 수 있는데, 이를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예가 그가 말하는 “타입”의 개념이다. 본래 廣意의 性格은 典型과 個性과 類型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나 이시기의 批評用語로서 “性格”은 일종의 목제에 의해 “典型的 性格”, 즉 “典型(type, Typus)”을 의미하는 것으로 쓰여지고 있었다. (拙稿, 前掲書, p. 26 참조) 그런데 그는 “性格”을 “個性”의 의미로, “타입”을 “典型”의 의미로 각각 사용하며, (휴먼 이즘 文學의 正常的 發展을 爲하여, 「朝光」1937. 6. pp. 326~328 참조) 경우 따라서는 “푸로文學은 한개의 타입은 發見하였다……그러나 그들은 性格을 發見하는 못하였다”(上掲書, p. 326)고 하여 “타입”을 “類型”의 의미로 사용하는 등의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므로 종래의 小說의 要素를 이루면 “스토리과 性格의 構成” 대신 “雰圍氣 描寫와 타입의 創造”를 내세운 그의 長篇小說改造論(長篇小說은 彷徨한다, 「東亞日報」1939. 5. 9~18)은 리얼리즘에 대한 오해와 性格, 타입에 대한 개념상의 혼란에서 빚어진 무의미한 論策이 되고 만다.

이면서도 單히 現實에만 執着하지 안코 可能한 現實을 創造할 수 있는 創造的 리아리즘”을 역설하면서 “이러한 創造的 리아리즘을 나는 휴머니즘이라고 불너온 것”이라 言明한다.⁸⁰⁾ 즉 그의 論理에는 創作方法論과 이데올로기와 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며, 휴우머니즘이 다분히 創作方法論에 가까운 것으로 오해되어 있는 것이다.

결국 金午星의 휴우머니즘론은 三木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리얼리즘과 아이디얼리즘의 折衷 내지 統合을 의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여기에서 그는 리얼리즘과 아이디얼리즘, 客觀主義와 主觀主義, 認識과 創造, 로고스와 파토스, 哲學과 文學……등 모든 대립되는 두 요소의 통합을 주장한다. 이 점에서, 前述한 바와 같이 불투명하나마 리얼리즘과 아이디얼리즘의 綜合을 꾀한 것이라 볼수 있는 白鐵의 所論도 어느정도 유사한 것이라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그의 人間探求論은 프로文學과 브르조아文學의 綜合을 의도한 것이며 風流人間論은 東洋人間의 風流性에 西歐的 휴우머니즘의 積極性의 도입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이와 同軌의 논리라 볼 수 있다.

그러나 論者들의 이와같은 統合論이 얼마만큼의 方法論的 精密性을 동반하고 있는가를 따져본다면 이들의 立論에는 일반적으로 折衷主義의 脆弱性이라 지적될만한 문제점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다 선명하게 드러내주는 예가 白鐵의 「文學에 있어서의 個性과 普遍性」이다. “個性을 확장한 점, 그것은 文學에 있어 보편성에 도달하는 本道”⁸¹⁾라는 말로 요약되는 이 論文은 하나의 個性으로 하여금 그 個性을 유지하면서 普遍성을 획득할 수 있게 하는 方法에 대한 관심이 전혀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본래 個性과 普遍성은 리얼리즘문학에 있어서 典型創造의 핵심을 이루는 개념으로서, 典型은 個性的인 것과 普遍的인 것의 有機的인 統合이라 규정된다. 이때 개개의 것, 또는 個性은 그 자체로서는 抽象的인 것이며, 普遍성의 도움을 받아야만 비로소 具體的인 概括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個性이 普遍성을 획득하여 하나의 典型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떤 過程

80) 金午星, 文學에 있어서 倫理와 論理 (『朝鮮日報』1937. 9. 23)

81) 『全集』1, p.514.

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 과정은 “개개의 경우를 典型的인 의미로 凝縮시키는 것(Verdichtung)”이라 불리 우기도 한다.⁸²⁾ 이 凝縮過程에 의해 비로소 個性은 普遍性を 획득하는 것임을 생각할 때, 단순히 文學은 個性的이던 個性的일수록 普遍性에 가까와진다고 주장하는 그의 論理는 이 中間過程을 의면한 맹목적인 個性擁護에 불과한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리얼리즘과 아이디얼리즘, 主觀主義와 客觀主義, 認識과 創造등의 統合을 주장하는 金午星의 所論에서도 그 결합을 가능케 할 하나의 方法, 또는 中間過程에 대한 고찰이 결여되어 있다. 이 문제를 의면할 때 그들의 理論에서는 아무리 극단적으로 相馳되는 氷炭의 요소라도 용이하게 折衷 統合된다. 그러나 이러한 抽象論을 벗어나 막상 現實과 作品 자체를 대하고 보면 그들이 제시한 統合은 실상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임이 드러나고 만다. 이들의 折衷論은 모든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아무것도 의의하지 못하는 이론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리얼리즘論者들의 견해에 의하면 모든 위대한 藝術, 그리고 진정한 리얼리즘과 휴우머니즘은 “인간의 無缺性(Integrität)에 대한 배려”를 원리로 하여 불가분의 상태로 相互融合되어 있는 것이다.⁸³⁾ 白鐵과 金午星에 대한 리얼리즘論者들의 비판은 일차적으로 이 문제에 관련된 것이라 생각된다. 즉 이들의 휴우머니즘론이 리얼리즘을 지향하면서도 부분적인 論理의 混亂으로 인해 아이디얼리즘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거나, 또는 리얼리즘과 아이디얼리즘의 統合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爭點은 리얼리즘과 아이디얼리즘의 統合을 주장하는 이들의 立論이 方法論的인 문제를 거의 고려하지 않은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데에 있다. 이로 인해 이들의 휴우머니즘론은 “空中에 떠” 있으며 현실적으로 우리 문학을 위해 도움을 주기 어려운 “卓上空論”에 불과하다는 비판⁸⁴⁾을 받게 되는 것이다.

82) H.H. Holz, Kunst als Symptom: Das Prinzip Realismus, Vom Kunstwerk zur Ware, Luchterhand, 1972, pp. 52-54.

83) P. Ludz, (hrsg.) Literatursoziologie, Luchterhand, 1972(1961), p. 238.

84) 李源朝, 휴마니즘의 空論 (『朝光』 1937. 6) pp. 210~211.

民族主義文學와 傾向文學을 沮止당한 1930년대 중반의 韓國 社會에서 휴우머니즘론은 리얼리즘론과 함께 文藝批評을 통해 日帝의 軍國主義와 植民地統治에 對항하는 最大限의 鬭爭線을 의미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에서서는 누구나 일단 그 論議의 意義와 價値를 인정해야 하리라 본다. 그러나 이 시기의 휴우머니즘론은 그 論題의 성격상 목표하는 바, 時代精神의 摸索이라는 과제를 완성하는 데에까지는 이르지 못했음이 사실이라 하겠다. 어떤 의미에서는 바로 이때문에 그 후의 批評은 小說論으로 그 관심을 옮겼던 것이라 볼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文藝批評이 이러한 原理的인 차원에서 時代의 中心思想을 확보하는 데에 실패했기 때문에, 리얼리즘론을 통해 보다 技術的인 차원에서의 일치된 成果를 이루고자 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시기의 휴우머니즘론이 내포한 論點들을 정리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로 불란서의 行動主義의 휴우머니즘과의 관계에 있어서 金午星과 白鐵의 所論은 각각 이에 대한 贊論과 反論에 해당된다. 특히 白鐵은 A. 지드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文學人으로서 주목되나, 이는 지드 문학의 個人主義的 성격에의 공감일 뿐, 行動主義 文學論 제창의 계기를 이룬 知識人으로서의 지드의 영향은 아니었다고 본다.

둘째로 白鐵과 金午星의 휴우머니즘론은 (한때의) A. 지드와 R. 페르낭메스의 左傾한 휴우머니즘과는 달리 명백한 自由主義의 입장을 고수하려 하였다. 이 점에서 그들은 林仁植의 社會主義的 휴우머니즘과 대립, 논쟁하게 된다.

세째로 白鐵과 金午星의 理論은 결국 초기의 안티 파시즘의 명목을 포기하고, 일본의 軍部 파시즘에 결탁하기에 이르른다. 이는 그들의 휴우머니즘론의 通弊인 觀念性과 抽象性이 야기한 결과라 생각된다.

네째로 創作方法論의 문제에 있어서 그들은 대체로 리얼리즘과 아이디얼

리즘의 統合 내지 折衷을 의도하였다. 그러나 이 立論은 方法論的인 精密性을 缺하고 있었기 때문에 小說論으로서의 일정한 成果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이때문에 휴우머니즘론은 리얼리즘 論者들로부터 전반적인 不信과 批判을 받게 되었다.

이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後者의 두 事項으로서, 이 시기의 휴우머니즘론이 그 意慾과 論議의 振幅에 비해 成果가 貧弱했던 원인은 이 문제에 집약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政治, 社會와는 무관한 차원에서 휴우머니즘의 具顯이 가능하다고 믿고, 당시의 韓國의 現實을 거의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日本의 軍國主義 앞에 無力할 수 밖에 없었으며, 다른 한편 創作方法論으로 具體化시키는 方法論에 대한 자각이 투철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文藝理論上으로 정착시키는 데에 한계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같은 主體性과 科學性의 缺如는 곧 이들이 論議 過程上 모랄의 문제를 외면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휴우머니즘론의 一端으로서 비교적 확실한 成果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모랄론 쪽이었으며 이 모랄론은 다시 리얼리즘론과 연결됨으로써 具體化가 가능해졌던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이 모랄의 중요성은 어느 의미에서는 휴우머니즘논의를 통해서 비로소 발견, 부각된 것으로서, 이 역시 휴우머니즘론의 成果의 일부였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